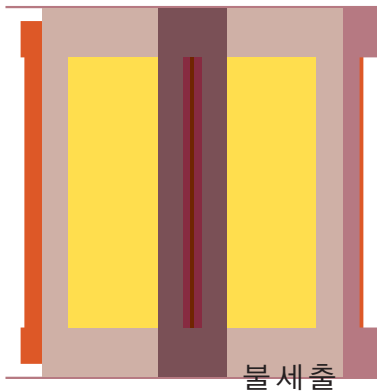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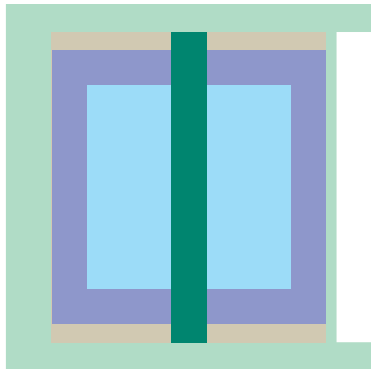




불세출

이준
Lee Joon

김용하
Kim Yonghwa

배정찬
Bae Jungchan

박계전
Park Gyejeon

최덕렬
Choi Deokryol

박재헌
Park Jehun

김진욱
Kim Jinwook

전우석
Jeon Wooseok



	동류도시 Flowing City 6:03 • 작곡 최덕렬 Composed by Choi Deokjol	연 Kite 4:24 • 작곡 김용하 Composed by Kim Yonghwa	북청 Bukcheong 8:10 • 작곡 김용하 Composed by Kim Yonghwa	달빛 Moonlight 6:57 • 작곡 최덕렬 Composed by Choi Deokjol	종로풍악 Song of Jongno 8:07 • 작곡 최덕렬 Composed by Choi Deokjol	신천동류 Sincheonpungryu 8:20 • 작곡 박계전 Composed by Park Gyejeon	푸너리 Puneori 6:11 • 작곡 이준 Composed by Lee Joon	지옥가 Divine Song 7:32 • 작 · 편곡 불세출 Composed and Arranged by Bulsechul
	1	2	3	4	5	6	7	8
이준 가아금, 팽과리 Lee Joon Gayageum, Kkwaenggwari	가아금 Gayageum	가아금 Gayageum			가아금 Gayageum		가아금 Gayageum	가아금, 팽과리 Gayageum, Kkwaenggwari
전우석 거문고, 바라 Jeon Wooseok Geomungo, Bara	거문고 Geomungo	거문고 Geomungo	거문고 Geomungo	거문고 Geomungo	거문고 Geomungo			거문고, 바라 Geomungo, Bara
김진욱 대금, 단소, 통소, 징 Kim Jinwook Daegeum, Danso, Tungso, Jing	대금 Daegeum			대금, 단소 Daegeum, Danso	대금 Daegeum	대금, 통소 Daegeum, Tungso		대금, 징 Daegeum, Jing
박제현 아쟁, 양금, 바라 Park Jehun Ajaeng, Yanggeum, Bara	아쟁 Ajaeng					아쟁, 양금 Ajaeng, Yanggeum	아쟁 Ajaeng	아쟁, 바라 Ajaeng, Bara
배정찬 장구, 소리 Bae Jungchan Janggu, Vocal	장구 Janggu					장구 Janggu	장구 Janggu	장구, 소리 Janggu, Vocal
박계전 피리, 생황, 태평소 Park Gyejeon Piri, Saenghwang, Taepyeongso	피리, 태평소 Piri, Taepyeongso			생황 Saenghwang	피리 Piri	피리, 생황 Piri, Saenghwang		피리, 태평소, 생황 Piri, Taepyeongso, Saenghwang
해금, 팽과리 Kim Yonghwa Haegeum, Kkwaenggwari	해금 Haegeum		해금 Haegeum		해금 Haegeum	해금 Haegeum		해금, 팽과리 Haegeum, Kkwaenggwari
최덕렬 기타, 징, 정주 Choi Deokjol Acoustic Guitar, Jing, Jeongju	기타 Acoustic Guitar	기타 Acoustic Guitar	기타 Acoustic Guitar	기타 Acoustic Guitar	기타 Acoustic Guitar	징, 정주 Jing, Jeongju		징 Jing

지옥가 Divine Song

나무 일심봉천 일팔아 지옥지옥 망령이라
염불 일천편을 오와다가 마이신 대왕님전에 바치시고
죽어도 일필지옥을 면해가소

나무 일심봉천 칠보 부모지 대효현이라
염불 일천편을 오와다가 마이신 대왕님전에 바치시고
죽어도 부모님 은공을 갚고 가소

나무 일심봉천 팔고 병고지 악귀라도
염불 일천편을 오와다가 마이신 대왕님전에 바치시고
죽어도 악한귀신을 면해가소

일정팔아 십사생 지옥밑에는 팔제자이십삼대야 사관음 팔로구암은 호적화창

일도산 지옥을 면하자면 칼도자 지옥을 면해가소
이화탄 지옥을 면하자면 불화자 지옥을 면해가소
삼한빙 지옥을 면하자면 얼음빙자 지옥을 면해가소
사금수 지옥을 면하자면 물수자 지옥을 면해가소
오발설 지옥을 면하자면 백발자 지옥을 면해가소
육도사 지옥을 면하자면 뱀사자 지옥을 면해가소
칠좌천 지옥을 면하자면 앓좌좌자 지옥을 면해가소
팔거해 지옥을 면하자면 톱거자 지옥을 면해가소
구철산 지옥을 면하자면 쇠철자 지옥을 면해가소
여래 흑암지옥을 면하자면 어두운 지옥을 면해가소

•
‘세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의 ‘불세출(不世出)’을 이름으로 내걸고 음악의 뜻을 모았던 때가 2008년. 이번 음반은 7년 만에 내놓는 이들의 첫 결실이다. 국악에 기반을 둔 창작그룹이 꽤나 빠른 흥망성쇠의 궤적을 그리는 지금. 이에 비한다면 이들은 낮은 흐름으로 새로운 음악을 빛고 있는 중이다. 이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불세출은 8명의 멤버로 구성되었다. 이준(가야금), 전우석(거문고), 김진욱(대금), 박제현(아쟁), 박계전(피리 · 태평소 · 생황), 김용하(해금), 최덕렬(기타 · 작곡), 배정찬(장구 · 소리)이 그들이다. 그들이 무대에 오르면 남성 주자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 많은 관객이 놀란다. 그리고, 각자의 손이 음표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음악에 담기는 예사롭지 않은 남성 특유의 힘에 또 한 번 놀란다. 그 ‘힘’은 소리를 쏟아내는 폭격기 같으며, 한편으로는 애인의 머릿결을 어루만지는 섬세한 손길 같기도 하다. 양면적인 성격에 또 다시 놀란다. 한 마디로 거칠면서도 섬세한 8명의 남자들이 만든 음악인 셈이다.
정말이지 불세출이 음악을 빛고 발표하는 속도는

낮고 느리다. 그런데, 만약 한 명의 작곡가가 쓴 악보를 이들이 나눠 갖고 음악의 합(合)을 이룬다면 이들이 나아가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이들이 음악을 세상(世)에 내놓는(出) 과정을 살펴보자. 7명의 주자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인다. 이들에게 음악의 조립을 위한 설명서(=악보)는 없다. 체화되고 손끝에 매달려 있는 음들을 꺼내놓을 뿐이다. 그것은 산조일수도, 시나위일수도, 궁중음악일 수도, 혹은 ‘국악’으로 포섭되지 않은, 혹은 ‘국악’이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음악, 소리, 음향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둘씩 조립해간다. 어떤 소리와 선율은 과감히 취하고, 취하는 만큼 버리기도 한다. 그 풍경이란 설명서 없이, 오직 자신의 상상력만으로 조립과 결구의 즐거움을 느끼며 레고놀이를 하는 천진한 아이를 떠올리게 한다.
이 과정에서 불세출의 멤버들은 느슨한 부분을 조이고, 음으로 곡을 다진다. 매끄럽기 위해 기름칠을 하기도 한다. 각 악기만큼 성격이 다른 멤버들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연과 변수, 충돌과 충돌의 과정도 통제하고 제련한다. 때로는 완성된 음악이 어떤 악기의 일격과 일침으로 부수어지기도 하고 그 잔재 속에서 새로운 음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이 곧 이들이 음악을 빚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출력물은 뒤늦게 빛을 받는다. 이를 두고 즉흥에 기반 한 시나위의 음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건 불세출만의 방법론으로 ‘세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음악이 튀어나온다.

이번 음반에는 ‘풍류도시’ ‘연’ ‘북청’ ‘달빛’ ‘종로풍악’ ‘신천풍류’ ‘푸너리’ ‘지옥가’ 총 8곡이 담겼다. 음반을 오디오에 건다.

‘풍류도시’는 산조의 힘으로 붓 끝을 모아 시나위의 먹물을 찍어 날 선 필치로, 빠르고 정신없이 급격하게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그린 한 폭의 모던 동양화 같다. 불세출은 그 풍경 속 허공에 연을 띄운다. 두 번째 곡 ‘연’이다. ‘연’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하늘을 나는 연이라면 기타는 이것을 춤추게 하는 바람처럼 느껴진다.

세 번째 곡인 ‘북청’과 다음 곡인 ‘달빛’은 각각 긴장과 이완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 ‘북청’에서 거문고와 기타는 냉랭하고도 서늘하게 시간을 몰아가고 해금은 그 위에 한 겹 더 두꺼운 긴장감을 병치시킨다. 거문고의 둔중한 무게와 해금의 카랑카랑함이 부딪치면서 한 판의 레이스를 벌인다. 반면 ‘달빛’은 이완이다. 아니, 부드러움이다. 강풍(强風)으로 노래하던 거문고,

기타, 대금 · 단소, 생황은 온화한 미풍(微風)의 노래를 부른다. 애인의 머릿결을 어루만지는 느낌이다.

‘종로풍악’과 ‘신천풍류’의 중요한 코드는 방(房)과 모임이다. 불세출은 조선시대에 방 안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정답게 모여 음악을 즐기던 방중악 문화를 서울 종로의 구석구석에서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한 바 있다. 그 때 ‘종로풍악’을 선보였다. 음악의 다양한 표정들이 태생지의 꼬리표를 떼고 혼란스럽게 모인다.

하지만 이내 곧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 흥미롭다. ‘신천풍류’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그들의 연습실에서 나온 음악이라 ‘신천풍류’라 이름을 붙인 것이라. 그래서 두 곡은 모두 엉덩이 깔고 앉은 ‘곳’이 ‘곡’이 된 채미난 경우에서 나온 음악이다. 그 익살스러움이 연주에서 우러나온다. 음반이 오디오 속에서 돌고 돌다 눈물을 흘린다. 애절하다. ‘푸너리’다. 가야금과 아쟁, 장고는 나지막이, 슬피, 구슬프게 운다. 울‘음’이 곧 ‘음’악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풍류도시’로 문을 연 음반은 ‘지옥가’로 문을 닫는다.

이 음반은 2007년 결성 이후 공식적으로 발매하는 첫 음반이다. 그들의 다음 음반은 어떤 곡들이 모일까, 미리 궁금함의 욕심을 부려본다.

+

글 · 송현민(음악평론가)

Bulsechul's First Official Album

My father built pipe organs, so I learned about music from an early age. He had a large record collection of mostly Bach with a sprinkling of Beethoven, Mozart, and other big names. Our family often went to concerts, and one day, I remember asking my father what a concerto was. He told me that it was a battle between the orchestra and the solo instrument. He then said that the battle pushes the solo instrument to its limit, which is what makes a concerto interesting. I thought of my father's words as I listened to the tracks in this, the first official album by Bulsechul, a Korean traditional music ensemble formed in 2006.

Korean traditional music in 2015 is in a state of crisis that nobody talks about.

The older generation that learned music through apprenticeship is giving way to a younger generation that learned music in school. The younger generation is schooled to perform and, in the context of competitive Korea, faces pressure to make things interesting, which has pushed performers into fusion. The problem with fusion, of course, is that it tries to blend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something else to create a mushy musical smoothie. Combine that with kitsch costumes and you have Hallyuesque entertainment that looks good, but is devoid of any aesthetic battle.

Having seen and heard more than my fair share of Hallyuesque fusion, I was pleasantly surprised to find that Bulsechul was about traditional Korean music. Composed of seven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gayageum*, *geomungo*, *heageum*, *ajaeng*, *daegeum*, *piri*, and percussion—and the guitar, Bulsechul performs original compositions that use all or some of the instruments. As in a concerto, the solo instrument is highlighted and pushed to its creative

limit. The solo instrument sometimes invites the other instruments into concerto-like turn taking. At other times, the solo instrument improvises and then lets the other instruments applaud through their own flurry of improvisation.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re composed of strings, winds, and percussion. The most commonly used string instrument is the plucked 12-string *gayageum*, which has a bright, harmonious sound. The six-string *geomungo*, which is plucked with a short stick, has deeper, more austere, sound. The *ajaeng* has eight or ten strings and is played with a short bow and has a melancholy sound. These three string instruments are played with the instrument resting on the floor. The *haegeum* has two thick silk strings and is played vertically with a bow. The *daegeum*, another one of the most commonly taught instruments, is a transverse bamboo flute and the *piri* is a double reed instrument. Korean percussion includes drums, gongs, chimes, and cymbals. Bulsechul makes the most use of the *janggu*, an hourglass-shaped drum played by hand or by a short stick. The guitar, the only non-Korean instrument in the group, adds interest and surprise as it punctuates the flow of the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like music elsewhere, has formal and codified forms associated with the royal court and the aristocracy and informal forms associated with the religious and social practices of the common people. Both are still performed today, but forms associated with the common people are taught and performed far more frequently. The underlying aesthetic in these forms is *heung*, which means a combination of fun, pleasure, and excitement. *Heung* is spontaneous, but not light; it is intense, but not heavy. *Heung* comes from a sense of joy and liberation in the performers, but with Bulsechul, it takes on another dimension as the performers thrive in the aesthetic battle. In so doing, they show that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a future beyond the vapidly Hallyuesque fusion.

+ Robert J. Fouser

Recorded
February 2015
by Audioguy
at Record Master Studio
+
Mastered at
Audioguy Studio, Seoul

Producer
불세출 Bulsechul
+
Balance engineer
최정훈 Choi Jung-hoon
+
Additional recording engineer
박주경 Park Ju-kyung
+
Assistant engineer
최정은 Choi Jung-eun
+
Project manager
최용석 Choi Yong-seok
+
Assistant manager
원혜정 Won Hye-jung
+
Artist manager
김미지 Kim Mi-jee
+
Design
이기준 Lee Ki-joon

Microphones
Violet Design
The Stereo Flamingo Stereo
Violet Design
The Flamingo Vintage
Violet Design The Garnet
AEA R44C
Scheops MK 4
DPA 4006 AE
+
Recording format
DSD 256

AGSACD0070

© & © 2015

Audioguy Records, Ltd.

1807 Yongbieocheonga,
75 Naesu-dong,
Jongno-gu, Seoul, Korea

www.audioguyrecords.com